

하나님의 숨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시고 내심으로써 충분히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됨

11/04 월요일

아침의 누림

창 2:7

7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요 20:22

22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잠 20:27

27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욥 32:8

8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숨이 그들에게 충명을 줍니다.

롬 8:16

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고전 6:17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요 1:14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사람의 몸속으로 불어 넣어진 생명의 숨은 사람의 영이 되었다(비교 욥 32:8). 사람의 영은 사람의 내적인 기관으로서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자신의 온 존재 안에 동화하여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게 한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기관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사람의 영을 하늘들과 땅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속 12:1). 사람의 영은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고(요 4:24),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며(요 3:6 하), 하나님과 연결되어(고전 6:17, 딤후 4:22),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유기적인 연결 안에서 행하고 살도록 한다(롬 8:4 상).

사람의 코에 불어넣어진 생명의 숨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도 아니다. ...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요 20:22), 성령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매우 가깝다. 그러므로 영 하나님과 사람의 영 사이에는 전달이 있을 수 있으며,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창 2:7 각주 5)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20 장 22 절에서 언급된 성령은 요한복음 7 장 39 절에서 예정되고, 요한복음 14 장 16 절부터 17 절까지와 26 절, 15 장 26 절, 16 장 7 절부터 8 절까지와 13 절에서 약속된 그 영이시다. 따라서 주님께서 제자들 안으로 성령을 불어 넣으신 것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것은 사도행전 2 장 1 절부터 4 절까지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다르다. 사도행전 2 장 1 절부터 4 절까지에서 이루어진 것은 누가복음 24 장

49 절에 있는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 사도행전 2 장의 강하고 세찬 바람 같은 그 영은 제자들의 일을 위하여 그들 위에 능력으로 임하셨다(행 1:8). 여기 요한복음 20 장 22 절에서 숨인 그 영은 제자들의 생활을 위해 생명으로 그들에게 불어 넣어지셨다. 그 영을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으심으로써 주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과 모든 것으로 그들 안에 나눠 주셨다. 이렇게 하여 그분께서 요한복음 14 장부터 16 장까지에 걸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땅에서 자라나 새롭고 생생한 또 다른 형태로 변화되듯이,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육체에서 그 영으로 변형되었다. 육체 안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분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시어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 주님께서 제자들 안으로 불어 넣어지신 것은 바로 그 영으로서이다. 주님께서 믿는 이들 안으로 받아들여지시고 그들에게서 생수의 강들로 흘러 나오시는 것도 바로 그 영으로서이다(요 7:38-39).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거치시어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의 보혜사로서 그들 안에 들어가시어 거하시기 시작하신 것도 그 영으로서이다(요 14:16-17). 주님께서 제자들 안에 사실 수 있으시고, 제자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그 영으로서이다(요 14:19). 주님께서 제자들 안에 거하실 수 있으시고, 제자들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그 영으로서이다(요 14:20, 15:4-5). 주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시는 것도 그 영으로서이다(요 14:23). 주님께서 그분의 온 존재와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온전히 실재가 되게 하시는 것도 그 영으로서이다(요 16:13-16).

주님은 말씀이셨고,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요 1:1).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분은 두 단계를 취하셨다. 첫째로, 주님은 육체가 되시는 단계를 취하심으로 육체를 입으신 사람이 되셨고(1:14), 사람을 위해 구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셨고(1:29),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고(1:18), 믿는 이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셨다(14:9-11). 둘째로, 주님은 죽음과 부활의 단계를 취하심으로 자신을 믿는 이들 안에 생명과 모든 것으로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또한 영원토록 삼일 하나님을 표현할 그분의 몸인 교회, 곧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시려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그분의 많은 형제들을 산출하시기 위하여 그 영으로 변형되었다.(요 20:22 각주 1)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

11/05 화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3:14-16

14 그러나 그대는 배운 것과 확신하고 있는 것 안에 머무십시오. 왜냐하면 그대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으며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그대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할 수 있습니다.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요 6:63

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행 6:4

4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딤펢전 4:7

7 속되고 허무맹랑하게 꾸며 낸 이야기를 거절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갈 3:2

2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라는 표현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임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요 6:63) 또는 숨이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은 그 영이신 하나님의 체현이다. 그러므로 마치 인(燐)이 성냥의 본질적인 물질인 것처럼, 그 영은 바로 성경의 본질이시며 실질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성경 말씀의 그 영과 마찰하여 신성한 불이 붙도록 해야 한다.

영 하나님의 체현인 성경(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의 체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시며(계 19:13),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다(마 4:4).(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 5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성경, 특히 신약은 성경을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방식으로 읽으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에베소서 6 장 17 절과 18 절은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3 장 16 절에 따르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절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임을 지적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성경 안에 숨으로 내쉬셨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숨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숨으로 내쉬실 때, 이것은 그분 자신을 내쉬신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들이신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쉬시는 것과 우리가 들이쉬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세상의 모든 책은 본질상 똑같지만 성경은 다른 책들과 다르다. 성경은 유일하다. ‘영’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뉴마(pneuma)’인데, 이 단어는 또한 ‘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거룩한 숨이시라고 말할 수 있다(비교 요 20:22).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거룩한 숨이시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영이신 하나님의 숨이라고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숨으로 내쉬셨으며, 이처럼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것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라고 말하는 디모데후서 3 장 16 절의 의미이다.

요한복음 6 장 63 절에서 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 곧 프뉴마이다. 그분의 말씀은 그 영의 체현이며, 그 영은 생명을 주신다.

체험을 통해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가르치는 일에 영이 많이 있으려면 많은 기도가 필요함을 알고 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 우리는 주님을 계속 호흡하는 사람, 하나님을 항상 들이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을 읽는 것은 일종의 들이쉬는 것이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일종의 내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이고, 이 숨은 그 영이며, 그 영은 생명을 주신다. 그 영을 호흡할 때 여러분은 너울이 벗어지고 책망받고 바로잡히고 교육받을 뿐 아니라 생명을 받아들인다. ... 여름 진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안 여러분은 그 영을 접촉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에게 그 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영도 접촉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내쉬고 학생들이 하나님을 들이쉬고 있다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의 내쉬기와 학생들의 들이쉬기 사이에 일종의 교통이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방식이 올바르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청소년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를 통해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자신 안으로 들이쉬라. 기도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들이쉬는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학급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받아들인 것을 내쉬라. (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1권, 성경교사들을 위한 훈련, 1장, 506-507, 509 쪽, 2장, 518-51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1권, 성경 교사들을 위한 훈련, 1장

11/06 수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3:16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엡 3:9

9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게 하시어,

엡 1:17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롬 14:17

17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빌 3:9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마 16:24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고, 우리 편에서 성경은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교육하는 이 네 방면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 순서는 의미심장하다. 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먼저 나오는가? 왜 바로잡는 것이 교육하는 것보다, 가책받게 하는 것이 바로잡는 것보다 먼저 나오는가? 왜 가르치는 것이 처음에 나오는가? (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1권, 성경 교사들을 위한 훈련, 1장, 51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에게 합당하고도 충분한 영적 체험이 있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 절에서 가르치는 것이 계시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가르치는 것은 사실상 신성한 계시와 다름없다.

계시는 너울을 벗겨 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동안, 여러분은 그들이 삼일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 너울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 이것이 가르치는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데 유익하다는 것은 너울을 걷어 주는 데 유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여러분은 수업 시간마다 몇 번이고 점진적으로 너울을 걷어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방식은 너울을 벗겨 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계시를 제시해 준다. 이러한 가르침 아래 있는 사람들은 삼일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를 볼 수 있게 된다.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여름 진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들에게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 말하는 모든 이에게도 적용된다. 교회 집회에서 무언가를 말할 때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너울을 걷어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는 말이 계시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 절을 볼 때, 가르치는 것 다음으로 가책이나 책망을 받게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누군가가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를 보면 자신이 본 것에 의해 반드시 가책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과 결점과 죄들을 깨닫는다. 그 결과는 가책을 받는 것이다. 즉 책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책받는 것은 우리가 받은 계시에서 온다. ...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도중에 계시를 받는다면, 그 계시가 우리를 가책받게 하고 책망할 것이다.

가책받게 하는 것 다음에는 바로잡는 것이 온다. 가르치는 것이나 계시는 우리를 가책받게 하고, 가책받게 하는 것은 바로잡음을 산출한다. 바로잡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거나 어떤 사람을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거나 올바른 상태로 회복시키는 문제이다.

우리는 바로잡힌 후에 합당한 교육, 곧 의로 하는 교육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바울은 '가르치는 것'과 '가책받게 하는 것'과 '바로잡는 것'에는 어떤 수식어도 사용하지 않지만, '교육'에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의로 교육하는 데에'라고 말한다. 의는 올바른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교육은 우리가 올바르게 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가책과 책망을 받는 이유는 많은 방식과 방면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에 대해 잘못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교회, 형제자매들, 남편이나 아내, 부모, 자녀, 이웃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돈을 쓰는 방식,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옷 입는 방식, 혹은 머리 모양을 내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아주 많은 것이 잘못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이 받는 계시에 의해 책망받는다.

우리는 계시를 받은 직후에 종종 책망받는다. 이것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오는 계시나 어떤 가르침에서 오는 계시에 의해 자주 책망받았음을 간증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체험이 없었는가? 우리는 죄로 가득하고 불의하기 때문에 가르침을 통해서 오는 책망이 필요하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1권, 성경 교사들을 위한 훈련, 1장, 511-51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1권, 성경 교사들을 위한 훈련, 2장

11/07 목요일

아침의 누림

빌 3:9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딤후 3:17

17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되게 합니다.

고후 3:6, 15-18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계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5 사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너울이 그들의 마음에 덮여 있습니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고후 4:6

6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고(요 1:13, 벰후 1:4),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고전 6:17) 그 결과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이것은 경건의 비밀, 곧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것과 일치한다(딤후 3:16). 하나님의 숨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되고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될 수 있다(딤후 3:17).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온전하게'는 '자격이 완전하고 온전하게'를 뜻하고, '준비되게'는 '장비되게' 또는 '예비되게'를 의미한다.(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 5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성경의 절들을 기억하고 암송하면서도 책망을 체험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계시를 받을 때, 그 계시가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내고 우리를 책망한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책망받지도 않고 하나님에게서 직접적으로 책망받지도 않는다.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를 책망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책망받을 때, 우리는 자연히

바로잡히게 되고, 바로잡힐 때 의로 교육받는다.
그 결과 우리는 조정된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문제에서 조정되고
올바르게 될 수 있다. 그렇다고 그 문제에서 한
번 만에 영원히 올바르게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어느 형제가 아내에 대해 올바르지 않다고
가정해 보자. 말씀에서 오는 계시 아래서 그는
책망받고 조정된다. 그는 회개하고, 그런 다음
아내에게 사과하고, 그 결과 이제 아내에게
올바르게 된다. 그러나 며칠 후에 그는 다시
아내에게 잘못할지도 모른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책망받고 바로잡히고 조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사람, 곧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동참함으로써(요 1:13, 벰후 1:4)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고전 6:17)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내쉬심으로써 산출된다.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은 하나님-사람들을 산출한다.

우리는 '선한 사람(good man)' 일 지 는
모르지만 '하나님-사람(God-man)'은 아닐 수
있다. ... 우리에게서 알파벳 '오(o)'가 하나만
있어야 하는데 두 개가 있다. 우리가 가르침, 즉
계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여분의 '오(o)'가
더욱더 잘려 나갈 것이다. 그렇지만
'선한(good)'의 두 번째 '오(o)'를 한 번 만에
영원히 제거하기란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면도한 후에 다시 나오는 남자의 수염과 같고,
깎은 후에 다시 자라나는 풀과 같기 때문이다.
체험을 통해 우리는 이 두 번째 '오'가 항상
돌아온다는 것을 안다. ... 우리에게서 이 '오'를
거듭해서 잘라 주는 성경에서 오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디모데후서 3 장 17 절의 '-되게 합니다'
라는 말은 이 절이 앞 절의 결과임을 가리킨다.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한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름 진리 학교에서 여러분은 가르침, 곧
너울을 벗기고 걷어 주는 계시를 제시해야 한다.
그럴 때 여러분 학급의 청소년들은 하나님께
속한 무언가를 볼 것이고, 그들이 본 것이
그들을 책망하고 바로잡으며 의로 합당하게
교육하여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 결과와 산물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것이다.

여름 진리 학교의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여름 진리
학교의 목표는 가르침에 이어 가르침을 그리고
계시에 이어 계시를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들 자신을 보며, 가책받고
바로잡히고 교육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올바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삼일 하나님을 계속 들이쉬고, 그 결과 계시를
받고 가책받고 바로잡히고 의로 교육받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하나님-사람이 될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1권, 성경
교사들을 위한 훈련, 1장, 513-51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5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엡 5:25-27

25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26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27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요 6:63

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사 55:10-11

10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시며 싹을 내고
자라게 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씨를 주고
먹는 사람에게 양식을 주듯,

11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헛되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성취하며 내가 보내어 하게 한 일을 번영하게
하리라.”

말씀은 성경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인쇄된
문자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그 영도 아니고 검도
아니다. 에베소서 6 장 17 절에서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레마', 즉 어떤 상황에서 그
영께서 그 순간에 말씀해 주시는 즉각적인

11/08 금요일

아침의 누림

엡 6:17-18

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말씀이다. ‘로고스’ 즉 성경 안에 항상 있는 말씀이 즉각적인 ‘레마’가 될 때, 이 ‘레마’는 그 영이 될 것이다. 그 영이 되는 이 ‘레마’가 바로 대적을 조각내는 검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절을 거듭거듭 읽지만 그 말씀이 단지 로고스, 즉 문자에 속한 말씀으로만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말씀은 아무것도 죽이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 즉 현재의 즉각적이고 살아 있는 말씀하심이 된다. 바로 그때 레마는 그 영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요한복음 6 장 63 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절의 헬라어 원문 또한 ‘레마’를 사용한다. 현재의 즉각적인 말씀은 그 영이다. 이런 종류의 말씀은 검이다. 그러므로 검과 그 영과 말씀 이 셋은 하나이다. 더 나아가, 그 영이 아닌 우리가 이 검을 사용하여 원수를 죽인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5, 59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단지 객관적인 원수만이 아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처리해야 하는 것은 주관적인 대적이다. 사탄은 우리 밖에 있는 원수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이기도 하다. ... 원수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의 죽이는 능력이 주관적으로 우리 존재에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원수가 자기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주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죽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우리 안에 있는 원수의 요소들을 처리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불화살은 밖에 있는 원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대적에게서 온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반드시 원수뿐 아니라 대적과도 맞서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체험을 통해 우리는 결국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 자아임을 인식하게 된다. 자아가 최악의 적이다. 많은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객관적인 원수가 아니라 자아, 즉 우리 자신의 내적 존재이다.

자아가 가장 큰 원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죽이는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한편으로는 영양 공급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요소들이 죽음을 당한다. 여러분은 의심과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이러한 것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가? ...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안에 있는 대적이 죽음을 당한다. 한 차례 말씀을 기도로 읽은 후에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던 대적이 이미 사라졌음을 발견할 수도 있다. 매우 실지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자신 안으로 취한 말씀이 대적을 죽인 것이다.

아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형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관한 바울의 글을 기도로 읽을지도 모른다. 그 형제가 더 많이 그 말씀을 기도로 읽을수록, 더욱더 그는 아내를 향한 사랑이 실지적으로 자신 안으로 분배되고, 그 사랑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부정적인 요소를 삼켜 버린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영 안에서 온갖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은 더욱더 죽음에 넘겨질 것이다. 이처럼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은 잔치를 누리는 것일 뿐 아니라 싸우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가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전쟁이 일어나 우리 존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죽음을 당한다. 마침내 최악의 적인 자아가 죽음에 넘겨질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말씀을 기도로 읽기를 통해 죽음당할 때, 주님은

승리하신다. 그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한다.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대적을 죽이는 길이다. 날마다 각종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읽어야 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영 안에서 온갖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부정적인 요소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7, 885-88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1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상), 8 장

11/09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계 1:16

16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히 4:12

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렘 23:29

29 나의 말이 불과 같고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 같지 않느냐? 여호와와의 선포이다.

마 4:4

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요 5:39-40

39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40 그런데 여러분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 6:57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상할 줄 모르는 ‘대리석’ 인간이 아니다. 나는 교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종종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었는가? 나는 말씀을 그 영으로서 받아들임으로 통과했다. 그러면 내가 그 영으로서 받아들인 말씀이 원수를 죽이는 검이 된다. 겉보기에 그 영의 검은 나의 감정을 죽이지만 실지로는 내 감정을 이용하는 공중에 있는 악한 영을 죽인다. 직접적으로는 내 감정이 죽음당하지만 간접적으로는 악한 영이 죽음당한다. 이렇게 하여 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통과할 수 있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1권, 성경 교사들을 위한 훈련, 2장, 52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어느 날 저녁에 장로들 중 한 명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하자. 나는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히 이 일에 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나는 일어나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접촉한다.

나는 내 감정의 문제를 다루는 어떤 절도 읽지 않는다. 그 대신에 단순히 영을 사용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 읽을 때 내가 말씀을 살아 있는 방식으로 그 영으로서 받아들이면, 말씀이신 그 영께서 검이 되어 직접적으로는 내 감정을 죽이시고 간접적으로는 악한 세력을 죽이신다. 자연스럽게 마음 상한 것이 사라지고, 교회에게 어떤 손상도 입히지 않게 된다. 그러나 마음 상한 것을 계속 둔다면 그 때문에 교회생활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것이다.

죽이는 검이 되시는 그 영인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 교회생활 안에 보존될 길이 없다. 나는 반세기 이상 여행하며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수많은 성도를 접촉했다. 모든 원수를 죽이시는 그 영인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까지 이곳에 남아서 말씀을 공급하고 있지 못할 것이다. 나 자신을 어떤 교회나 성도에 대해 마음 상한 채로 두었다면, 나는 사역에 있어서 끝나 버렸을 것이다. 나는 그 영인 말씀의 죽임을 통하여 교회생활과 사역 안에 보존되었다.

어느 형제가 자신의 지방에 있는 교회에 대해 기쁨이 없다고 하자. 그는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는 좋아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도시로 이주한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방에 있는 교회도 마음에 들지 않아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 ... 이런 사람은 교회를 건축하는 데 참여할 수 없다. 오히려 반대로 그의 안에서 원수가 죽음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교회가 손상을 입는다

교회에 관한 책인 에베소서의 끝부분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그 영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그 영은 죽이는 말씀이 되신다. 이 검은 먼저 직접적으로는 우리를 죽이고, 그런

다음 간접적으로 공중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죽인다. ... 우리가 살아 있는 방식으로 그 영으로서 받아들인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세균들’을 죽이는 영적인 항생제이다. 세균들이 죽음을 당하면, 공중에 있는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이용할 길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의 생활, 곧 건강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교회생활과 나의 사역 안에 보존되어왔다. 그 영인 말씀의 죽임이 없었다면 나의 사역은 끝나 버렸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있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럴 때 우리의 체험에서 그 영께서 죽이는 검이 되신다. 말씀이 그 영이 될 때, 그 영께서 검이 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균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죽이는 그 영의 검이 되신다. 이렇게 하여 몸과 교회생활과 우리의 사역이 구원받게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사역은 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제들의 사역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들의 상황 가운데 죽음을 당한 것은 원수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사역이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1권, 성경 교사들을 위한 훈련, 2장, 523-52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7 빛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1권, 성경 교사들을
위한 훈련, 1장

찬송: 799 (英) 모든 성경은 하나님
호흡 (中:579)

11/10 주일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아침의 누림

- 1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
성령 감동해- 쓰여졌다네
하나님께서 사람 통하여
쓴 말씀 우린- 들어 마시네.
- 2 주의 말씀은 신성한 광선
사람들 속에- 비취주시네
참된 상태와 자신의 필요
볼 수 있도록- 어둠 비추네.
- 3 하나님의 숨 사람 생명 돼
신성한 성품- 얻게 하시네
죽은 이 살려 거듭나게 해
혼 생명 번케-하여 주시네.
- 4 하나님의 숨 사람 지혜 돼
신성한 지식- 가르치시네
주 영원한 뜻 계시하시어
최종 목적에- 이르게 하네.
- 5 하나님의 숨 사람 능력 돼
신성한 능력- 공급하시니
피곤한 이가 힘을 얻으며
주 뜻 이룰 힘- 갖게 하시네.
- 6 하나님의 숨 들이마실 때
하나님 축복- 누리게 되네
영 사용하여 호흡함으로
주 모든 풍성- 누릴 수 있네.

골 3:12-16

12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인자와 겸허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13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서로 짊어지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같이, 여러분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옷으로 입으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연결하는 띠입니다.

15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부름을 받은 것도 이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엡 5:18-20

18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19 이를 위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시를 읊고,

20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13:1-7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65-66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Looking Carefully in Falling Away
from the Grace of God, in Bitterness Springing Up,
and in Fornication and Profanity

Scripture: Heb. 12:14-17

Assigned Reading: *LS of Hebrews*, msg(s). 52

Supplemental Reading: *Life-study of Exodus*, msg.
30; *Life-study of 1 Thessalonians*, msg. 15

Questions:

1. In Heb. 12:15-16, what are three matters for which we need to look carefully?
2. What does it mean to fall away from the grace of God?
3. How are we healed from bitterness in the Christian life?
4. What does it mean in our experience to give up our own birthright in one meal, as Esau did, and why is this profane?